

《碧鷄漫志》譯註(4)

이 대 형*

— <目次> —

II. 《碧鷄漫志》 제2권 역주
[2.35조~2.36조]

III. 《碧鷄漫志》 제3권
[3.37조]

II. 《碧鷄漫志》 제2권 역주

[2.35원문] 古人使王昌莫愁事

古書亡逸固多, 存于世者, 亦恨不盡見。李義山絕句云: 「本來銀漢是紅牆, 隔得盧家白玉堂。誰與王昌報消息, 盡知三十六鴛鴦。」而唐人使王昌事尤數, 世多不曉, 古樂府中可互見, 然亦不詳也。一曰: 「相逢狹路間, 道隘不容車。如何兩少年, 挾轂問君家。君家誠易知, 易知復難忘。黃金為君門, 白玉為君堂。堂上置樽酒, 使作邯鄲倡。中庭生桂樹, 華燈何煌煌。兄弟兩三人, 中子為侍郎。五日一來歸, 道上自生光。黃金絡馬頭, 觀者滿路傍。入門時左顧, 但見雙鴛鴦。鴛鴦七十二, 羅列自成行。」一曰: 「河中之水向東流, 洛陽女兒名莫愁。莫愁十三能織綺, 十四採桑南陌頭。十五嫁為盧家婦, 十六生兒字阿侯。盧家蘭室桂為梁, 中有鬱金蘇合香。頭上金釵十二行, 足下絲履五文章。珊瑚桂鏡爛生光, 平頭奴子提履箱。人生富貴何所望, 恨不嫁與東家王。」以三章互考之, 即知樂府前篇所謂白玉堂與鴛鴦七十二, 乃盧家。然義山稱三十六者, 三十六雙, 即七十二也。又知樂府後篇所

* 한국고전번역원 직원

謂東家王，即王昌也。余少年時戲作《清平樂》曲贈妓盧姓者云：「盧家白玉為堂，于飛多少鴛鴦。縱使東墻隔斷，莫愁應念王昌。」黃載萬亦有《更漏子》曲云：「憐宋玉，許王昌。東西鄰短墻。」予每戲謂人曰：「載萬似曾經界兩家來。」蓋宋玉《好色賦》，稱東鄰之子，即宋玉為西鄰也。東家王，即東鄰也；載萬用事如此之工。世徒知石城有莫愁，不知洛陽亦有之，前輩言樂府兩莫愁，正謂此也。又韓致光詩：「何必苦勞魂與夢，王昌祇在此墻東。」業唱歌者，沈亞之目為聲家，又曰聲黨，又曰貢聲中禁。李義山云：「王昌且在墻東住，未必金堂得免嫌。」又云：「欲入盧家白玉堂，新春催破舞衣裳。」《對雪》云：「又入盧家妒玉堂。」

[2.35㉮] 옛사람이 왕창과 막수의 고사를 노래하게 하다.

망실된 고서는 참으로 많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것 또한 모두 보지 못하니 한이 된다. 이상은(李商隱)¹⁾의 절구²⁾에 읊었다.

본래 은하수가 붉은 담장³⁾이러니
 노가의 백옥당⁴⁾에 가로막혀있네
 누가 왕창⁵⁾에게 소식을 전하였나
 서른 여섯 원앙⁶⁾을 모조리 알고 있더군

本來銀漢是紅墻
 隔得盧家白玉堂
 誰與王昌報消息
 盡知三十六鴛鴦

- 1) 이상은(李商隱) : 812~858. 자는 의산(義山), 호는 옥계생(玉谿生)이다. 그의 시는 한·위·육조시(六朝詩)의 정수를 계승하였고, 두보를 배웠으며, 이하(李賀)의 상징적 기법을 사랑하였다. 또한 전고(典故)를 자주 인용, 풍려(豐麗)한 자구를 구사하여 수사문학(修辭文學)의 극치를 보여주어 시는 수사를 생명으로 하였고, 송초(宋初)의 서곤체(西崑體)의 비조가 되었다.
- 2) 절구 : 시 제목은 <대응(代應)>으로 이상은이 규방(閨房)의 그리움을 묘사하여 문후하는 편지의 회답을 모의하여 지은 시이다. 《이상은시사대전(李商隱詩詞大全)》
- 3) 붉은 담장 : 붉은 담장은 시인이 눈 앞에 보이는 지척거리의 삶의 장소이고 은하수는 하늘 높이 있어 다다를 수 없는 죽음이나 만날 수 없는 이별을 상징한다.
- 4) 백옥당 : 신선이 사는 곳이나 부잣집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 5) 왕창 : 옛사람 이름이다. 옛사람은 항상 이상적인 남편이나 정인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개를 '홍길동'이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당나라 사람은 왕창의 고사를 더욱 자주 거론하였지만 세상사람 대부분은 왕창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고악부(古樂府) 중에 서로 상호해 볼 만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역시 자세하지는 못하다.

다른 한 시⁷⁾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쳤는데	相逢狹路間
길이 좁아 수레가 통하지 않네	道隘不容車
어찌어찌하다 두 소년이	如何兩少年
수레를 끼고서 ⁸⁾ 그대 집을 묻네	挾轂問君家
당신 집이야 참으로 알기 쉬우니	君家誠易知
쉽게 알면 다시 잊기 어려운 법	易知復難忘
황금으로 그대 대문을 만들고	黃金為君門
백옥으로 그대 당실을 지었네	白玉為君堂
당상에는 술자리 마련하여 ⁹⁾	堂上置樽酒
한단의 창기 ¹⁰⁾ 로 만들었구나	使作邯鄲倡
중정에는 계수나무가 자라고	中庭生桂樹
환한 등불은 어찌나 반짝이던가	華燈何煌煌
형제가 두세 사람인데	兄弟兩三人
둘째가 시랑 ¹¹⁾ 이 되었는데	中子為侍郎
닷새마다 한 번씩 돌아오면	五日一來歸

- 6) 서른 여섯 원앙 : 다른 시에 일흔 두 원앙(七十二鴛鴦)이 나오는데 가족을 포함한 대식구를 가리키므로 36쌍 즉, 72마리의 원앙 무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 7) 다른 한 시 : 남북조시대 심약(沈約)이 지은 《상봉협로간(相逢狹路間)》이다.
- 8) 수레를 끼고서 : 좁은 길에 수레 두 대가 막혀서 가로막힌 형세이다.
- 9) 술자리 마련하여 : 고악부(古樂府)의 <계명(鷄鳴)>에는 “당 위에는 두 동이의 술이 있거니, 나를 한단 창기로 만들었구나.(堂上雙樽酒, 作使邯鄲倡.)”라고 되어 있다.
- 10) 한단의 창기 : 아주 고운 모습의 창기를 말한다. 한단은 전국 시대 조(趙)나라의 서울이다.
- 11) 시랑(侍郎) : 성의 차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공부의 장관(長官) 상서(尚書)의 부직(副職)이었다. 단, 당나라 때는 중서시랑(中書侍郎)은 황제의 최측근으로 재상급에 해당한다.

길에 저절로 빛이 생긴다오	道上自生光
황금으로 말머리 둘러싸니	黃金絡馬頭
구경꾼들 길가에 가득하네	觀者滿路傍
문에 들어갈 때 왼쪽을 돌아보니	入門時左顧
다만 원앙 한 쌍만 보이네	但見雙鴛鴦
일흔두 마리 원앙새 ¹²⁾ 가	鴛鴦七十二
저절로 행렬을 이루어 늘어섰네	羅列自成行

다른 한 시¹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수 ¹⁴⁾ 는 동쪽으로 흐르는데	河中之水向東流
낙양 소녀의 이름 막수 ¹⁵⁾ 라네	洛陽女兒名莫愁
막수는 열세살에 비단을 짤 수 있고	莫愁十三能織綺
열넷에 남쪽 밭두둑에서 뽕잎을 따네 ¹⁶⁾	十四採桑南陌頭
열다섯에 노씨에게 시집가서	十五嫁為盧家婦
열여섯에 아후 ¹⁷⁾ 라는 아이를 낳았네	十六生兒字阿侯

- 12) 일흔 두 원앙 :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 이민구(李敏求, 1589~1670)의 <의고(擬古)>시에 “노래 소리 풍악 소리 성대한 연회 즐기는데, 빈객들 분분하게 찾아온다오. 일흔 두 원앙, 함께 춤추는 여인들 이름답구나.(歌鼓盛宴邀, 賓客紛過從. 鴛鴦七十二, 對舞女丰茸.)”라고 되어 있다. <東州集別集 卷1 擬古 其十七>
- 13) 다른 한 시 : 남북조시대 양(梁)나라 무제 소연(蕭衍)이 지은 <하중지수가(河中之水歌)>이다.
- 14) 하수 : 황하의 강물을 말한다. 중국 북부에서는 강을 하(河)라고 하며 남부에서는 강(江)이라 다르게 부르는데, 황하만 하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모두 강이라 한다. 황하는 티벳 지역에서 발원하여 산둥성까지 동쪽으로 흐른다.
- 15) 막수(莫愁) : 고악부에 흔히 등장하는 전설적인 여자인데, 일설에는 낙양(洛陽)의 여자라고 하는데, 남조 양 무제(梁武帝)의 <하중지수가(河中之水歌)>에 “하중의 물은 동쪽으로 흐르는데, 낙양의 여자는 이름이 막수라네(河中之水向東流, 洛陽女兒名莫愁.)”라고 하였다.
- 16) 남쪽 밭두둑에서 뽕잎을 따네 : 비단은 누에고치로 만드는데, 누에는 오로지 뽕잎만 먹는다. 따라서 뽕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주로 논밭의 경계가 되는 밭두둑 위에 심어서 별도의 농장을 경영하지 않았다. 뽕잎을 따는 것은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닌 전문적으로 뽕잎을 따다 양잠업에 종사했음을 가리킨다.

계수나무 들보에 깨끗하게 꾸민 ¹⁸⁾ 노씨 집	盧家蘭室柱為梁
언제나 울금초와 소합향 ¹⁹⁾ 감도네	中有鬱金蘇合香
머리에 금비녀 열 두 줄 ²⁰⁾ 얹고	頭上金釵十二行
발에는 명주실로 만든 다섯 문양 신있네	足下絲履五文章
산호 장식 계수나무 경대에 불빛이 생겨나	珊瑚桂鏡爛生光
평두건 ²¹⁾ 쓴 노비가 신 상자 올리네	平頭奴子提履箱
인생에서 부귀를 어찌 바라리오마는	人生富貴何所望
동가왕 ²²⁾ 에게 시집 못한 것이 한이라네	恨不嫁與東家王

이 3장의 시를 서로 고찰해보면 곧바로 악부 전편에서 이른바 ‘백옥당(白玉堂)’과 ‘원앙칠십이(鴛鴦七十二)’가 바로 노씨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은이 36이라고 말한 것은 36쌍이니 바로 72마리이다. 또 악부 후편에 이른바 ‘동가왕(東家王)’이 바로 왕창이였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장난삼아 《청평악(淸平樂)》²³⁾곡조를 지어서 노씨 성을

-
- 17) 아후(阿侯) : 아이가 태어나면 정식 이름을 짓기 전에 아호(兒號)를 지어주기도 하는데, 애칭으로 앞에 ‘아(阿)’를 붙여준다.
- 18) 깨끗하게 꾸민 : 난실(蘭室)은 지란지실(芝蘭之室) 즉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이란 뜻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선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지란(芝蘭)의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 그 향기는 못 말더라도 오래 지나면 동화된다.” 하였다.
- 19) 울금초와 소합향 : 울금초는 강황(薑黃)이라고 하며 노란 뿌리줄기는 향신료로 쓰인다. 소합향은 소합향나무의 수지를 원료로 하여 만든 향으로 여러 가지 향을 섞어 끊어서 만든다.
- 20) 금비녀 열 두 줄 : 《說苑》에 “우승유(牛僧孺)가 ‘1천금을 주고 종유를 사서 복용하였더니 힘이 샘솟고, 또 노래 부르며 춤추는 기생이 많다.’고 자랑하므로 백거이(白居易)가 ‘종유는 삼천 냥이요 금비녀가 열두 줄이라(鐘乳三千兩, 金釵十二行.)’ 한 시를 지어 보냈다.” 하였는데, 금비녀가 열두 줄이란 처첩(妻妾)이 많다는 뜻이다.
- 21) 평두건(平頭巾) : 평두소양건(平頭小樣巾)이라고도 하는데, 위가 평평한 두건의 이름이다.
- 22) 동가왕(東家王) : 梁 武帝의 〈河中之歌〉 마지막 2구절에 “인생에 부귀를 어찌 바라리오, 일찌감치 동가왕(東家王)에게 시집가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人生富貴何所望 恨不早嫁東家王)”라고 되어 있다.
- 23) 청평악(淸平樂) : 《教坊記箋訂》에는 “《鑒戒錄》에는 오대시기 陳裕의 시가

가진 기생에게 주면서 시를 지어주었다.

노씨는 백옥으로 당실을 만드니	盧家白玉為堂
많은 원앙새가 날아오네	于飛多少鴛鴦
아무리 동쪽 담으로 막아도	縱使東牆隔斷
막수는 왕창을 그리워하리라	莫愁應念王昌

황재만 역시 《경루자(更漏子)》²⁴⁾곡에서 “송옥(宋玉)²⁵⁾을 가련히 여기고 왕창을 허여하네. 동서로 얇은 담장을 이웃하네.”라고 하였다. 내가 매번 장난삼아 사람들에게 “황재만은 일찍이 양쪽 집안 경계를 오가는 듯 하구려.”라고 말하였다. 대개 송옥의 《호색부(好色賦)》에서 ‘동쪽 이웃의 자식(東鄰之子)’이라고 불렀으니 바로 송옥이 서쪽 이웃이 된다. 동가왕은 바로 동쪽 이웃이다. 황재만은 이처럼 글 짓는 솜씨가 공고롭다. 세상 사

실려 있는데 ‘阿家解舞清平樂’이라는 구절에 따라 舞曲이다. 溫庭筠의 《清平樂》의 ‘新歲清平思同輩’이라는 구절에서 海內的 청평에 대한 뜻이 분명하지 결코 淸調와 平調에 대한 것이 아니다. 《唐書》에서는 南詔에 淸平官이 있었는데 청평관은 조정의 禮樂을 담당하였으며 당나라의 재상과 같았다. 楊憲益은 《零墨新箋》에서 이 곡을 南詔樂으로 분류했으니 관명에서 따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欽定詞譜》에서는 당교방곡의 이름이라고 했고, 《花菴詞選》에서는 《淸平樂令》이라고 했으며 張輯의 사에서는 《憶夢月》로, 張翥의 사는 《醉東風》이라고 불렀다. 쌍조, 46자이다. 앞단락의 네 구절은 사측운으로 22자이다. 뒷단락의 네 구절은 삼평운으로 24자이다. 《碧雞漫志》에서는 “이 곡은 越調에 있는데 당나라에 이르러 성행하였다.”라고 하였다. 《宋史·樂志》에는 이 곡이 “大石調”에 포함되었다. 《樂章集》에는 “越調”라고 주석하였다.

- 24) 경루자(更漏子) : 〈부금차(付金釵)〉, 〈독의루(獨倚樓)〉, 〈번취수(翻翠袖)〉 등의 사패 이름으로도 불린다. 온정균(溫庭筠)의 《경루자·옥로향(玉爐香)》을 정본으로 삼으며 쌍조 46자, 앞 단락 6구 2측운 2평운, 뒷 단락 6구 3측운 2평운으로 구성되며 별도로 쌍조 46자, 앞뒤 단락 각 6구 2측운 2평운과 쌍조 45자 앞 단락 6구 2측운 2평운, 뒷 단락 6구 3측운 2평운 등의 변체가 있다.
- 25) 송옥(宋玉) : 전국 시대 초(楚)나라의 시인이자 대부로 자는 자연(子淵)이며, 굴원(屈原)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구변(九辯)과 호혼(招魂)을 지었으며, 이 밖에 풍부(風賦)·고당부(高唐賦)·신녀부(神女賦)·등도자호색부(登徒子好色賦) 등을 지었다.

람은 다만 석성(石城)²⁶에 막수가 있는 줄만 알지 낙양에도 동명의 여인이 있는지는 모르니. 선배들이 악부에서 두 막수를 언급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 또 한약(韓偓)²⁷의 시에 “하필 혼령과 꿈을 수고롭게 하라, 왕창은 다만 이 담장 동쪽에 있는 것을.”이라고 하였다.

직업 가수가 심아지(沈亞之)²⁸를 지목하여 ‘성가(聲家)’라고 하고 또, ‘성당(聲黨)’이라고도 하며 또, ‘궁궐에 소리를 바친다’라고도 하였다. 이상은이 말하기를, “왕창이 또 담장 동쪽에서 살고 있으니, 황금으로 당실을 지을 필요 없어 혐의를 면할 수 있네.(王昌且在牆東住 未必金堂得免嫌)”라고 하고, 또 “노씨 집안의 백옥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새봄이 춤추는 의상²⁹을 꺾어버리라고 채촉하네.(欲入盧家白玉堂 新春催破舞衣裳)”라고 하였다. 《대설(對雪)》에는 “또 노씨 집안에 들어가 백옥당을 질투하네.(又入盧家妒玉堂)”라고 하였다.

26) 석성(石城) : 옛 악부(樂府) 가운데 나오는 전설적인 여인으로 석성(石城) 사람이었는데 13세에 시집가 노씨(盧氏)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며, 노래를 잘 불렀다 한다. 그녀의 노래에 “막수는 어느 곳에 있는가. 막수는 석성의 서쪽에 있도다.(莫愁在何處 莫愁石城西)”라고 되어 있다. 《구당서(舊唐書)》〈음악지(音樂志)〉에 “석성에 이름이 막수라는 여자가 있어 가요를 잘했다.(石城有女子名莫愁, 善歌謠)”라고 하였다.

27) 한약(韓偓) : 생졸년은 842~923이고, 그의 자는 치광(致光)이다. 호는 옥산초인(玉山樵人)이다. 10세에 시를 지을 줄 알았다. 벼슬은 소종(昭宗) 때 병부시랑(兵部侍郎)과 한림학사(翰林學士)·승지(承旨)를 지냈고, 애제(哀帝) 때 주전충(朱全忠)의 역절(逆節)을 미워하여 민(閩) 땅에 피하였다. 그의 시는 강개격양(慷慨激昂)하고 흥분(忠憤)의 기가 가득 넘쳤다. 《향림집(香奩集)》에는 염체(艷體)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것을 향림체(香奩體)라 일컫는다.

28) 심아지(沈亞之) : 781~832. 자는 하현(下賢), 오흥(吳興)사람이다. 시와 글을 아주 잘 썼다. 한유의 문하에 들어가 이하(李賀)와 교분을 맺었다. 장호(張祜) 서응(徐凝)과도 왕래하였다. 원화 10년(815)에 진사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첩의 이름이 노금란(盧金蘭)이다. 저서로는 《심하현집(沈下賢集)》이 있다.

29) 춤추는 의상 : 여러 어른을 위하여 축수의 춤을 추려고 하나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기 때문에 공연히 슬픔의 시만 읊조릴 뿐이라는 말이다.

[2.36원문] 陳無己浣溪沙

陳無己作《浣溪沙》曲云：「暮葉朝花種種陳，三秋作意問詩人。安排雲雨要新清。隨意且須追去馬，輕衫從使著行塵。晚窗誰念一愁新。」本是「安排雲雨要清新」，以末後句「新」字韻，遂倒作「新清」。世言無己喜作莊語，其弊生硬是也。詞中暗帶陳三、念一兩名，亦有時不莊語乎？

[2.36역] 진무기의 완계사

진사도(陳師道)³⁰⁾가 지은 〈완계사(浣溪沙)〉곡은 다음과 같다.

저녁에 낙엽 아침에 꽃 각양각색 수놓아	暮葉朝花種種陳
가을날 ³¹⁾ 노래할 마음으로 시인에게 묻네	三秋作意問詩人
운우의 정 ³²⁾ 을 안배하여 청신한 시구 찾으려면	安排雲雨要新清
마음 가는 대로 떠난 말을 뒤따라야 하리라	隨意且須追去馬
종사관 ³³⁾ 가벼운 적삼에 먼지가 내려앉으니	輕衫從使著行塵
저녁 창가에 그 누가 새로운 수심에 잠겨있나	晚窗誰念一愁新

본래 이 “구름과 비를 안배하여 맑고 새로워지면(安排雲雨要清新)”이었는데, 마지막 구절의 ‘신(新)’자를 운자(韻字)로 마침내 도치하여 ‘새롭고 맑아지면(新清)’이라고 지었다. 세상 사람들은 진사도가 장엄한 시어 짓기를 좋아하지만, 그 폐단은 생경³⁴⁾한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가사 중

30) 진사도(陳師道) : 생졸년은 1053~1101년이고, 자는 무기(無己)이다. 황정견(黃庭堅)의 시에 “문 닫고 앉아 시구 찾는 이는 진무기이고, 손님 마주해 붓 휘 두르는 이는 진소유로다.(閉門覓句陳無己, 對客揮毫秦少游.)”라고 하였다. 《山谷集 卷7 病起荆江亭即事》

31) 가을날 : 삼추(三秋)는 음력 7·8·9월 가을 3달을 가리킨다.

32) 운우의 정 : 무협(巫)의 신녀(神女)가 초 회왕(楚懷王)의 꿈에 나타나 교접하고는 그녀가 가면서 하는 말이 “아침엔 구름이 되고 저녁엔 비가 되리라.” 했다. 흔히 남녀의 합환(合歡)을 ‘운우(雲雨)’라 한다.

33) 종사관 : 종사(從使)는 임무를 띠고 멀리 부임하는 상대를 지칭한다.

34) 생경 : 글의 표현이 세련되지 못하고 어설뜨다는 뜻이다. 보통 시어는 청신하다라는 표현을 잘 한다. 세련되고 신선하다는 의미인데, 이 시에서는 도치하여

에 ‘진삼(陳三)³⁵⁾’이니 ‘염일(念一)³⁶⁾’ 두 별명을 암암리에 끼워 넣었으니, 또한 때때로 장엄하지 않은 시어를 지은 적이 있었다.

Ⅲ. 《碧鷄漫志》 제3권 역주

[3.37원문] 霓裳羽衣曲

《霓裳羽衣曲》, 說者多異。予斷之曰: 西涼創作, 明皇潤色, 又為易美名。其他飾以神怪者, 皆不足信也。唐史云: 河西節度使楊敬忠獻, 凡十二遍。白樂天《和元微之霓裳羽衣曲歌》云: 「由來能事各有主, 楊氏創聲君造譜。」自注云: 「開元中, 西涼節度使楊敬述造。」鄭愚《津陽門詩》注亦稱西涼府都督楊敬述進。予又考唐史《突厥傳》, 開元間, 涼州都督楊敬述為噉欲谷所敗, 白衣檢校涼州事。樂天、鄭愚之說是也。劉夢得詩云: 「開元天子萬事足, 惟惜當年光景促。三鄉陌上望仙山, 歸作霓裳羽衣曲。仙心從此在瑤池, 三清八景相追隨。天上忽乘白雲去, 世間空有秋風詞。」李肱《霓裳羽衣曲》詩云: 「開元太平時, 萬國賀豐歲。梨園進舊曲, 玉座流新製。鳳管迭參差, 霞衣競搖曳。」元微之《法曲》詩云: 「明皇度曲多新態, 宛轉浸淫易沈著。赤白桃李取花名, 霓裳羽衣號天落。」劉詩謂明皇望女儿山, 持志求仙, 故退作此曲。當時詩今無傳, 疑是西涼獻曲之後, 明皇三鄉眺望, 發興求仙, 因以名曲。「忽乘白雲去, 空有秋風詞」, 譏其無成也。李詩謂明皇厭梨園舊曲, 故有此新製。元詩謂明皇作此曲多新態, 霓裳羽衣非人間服, 故號天落。然元指為法曲, 而樂天亦云: 「法曲法曲歌霓裳, 政和世理音洋洋。開元之人樂且康。」又知其為法曲一類也。夫西涼既獻此曲, 而三人者又謂明皇

‘새롭고 맑다’처럼 어색한 표현이 되었다.

35) 진삼(陳三): 진사도가 진씨(陳氏) 집안의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진삼(陳三) 이라고 불렀다.

36) 염일(念一): 본래 불교에서 하나만 생각한다. 불교의 진리만 염두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진사도의 시구가 하나에만 집중하여 골몰하여 훌륭한 시구를 지어낸다는 의미의 별명으로 쓰였다.

製作，予以是知為西涼創作，明皇潤色者也。杜佑《理道要訣》云：「天寶十三載七月改諸樂名，中使輔璆琳宣進止，令于太常寺刊石，內黃鍾商《婆羅門曲》改為《霓裳羽衣曲》。」《津陽門詩》注：「葉法善引明皇入月宮，聞樂歸，笛寫其半，會西涼都督楊敬述進《婆羅門》，聲調脗合，遂以月中所聞為散序，敬述所進為其腔，製《霓裳羽衣》。」月官事荒誕，惟西涼進《婆羅門曲》，明皇潤色，又為易美名，最明白無疑。《異人錄》云：「開元六年，上皇與申天師中秋夜同游月中，見一大官府，榜曰：『廣寒清虛之府』。兵衛守門，不得入。天師引上皇躍超煙霧中，下視玉城，仙人、道士乘雲駕鶴往來其間，素娥十餘人，舞笑于廣庭大桂樹下，樂音嘈雜清麗。上皇歸，編律成音，製《霓裳羽衣曲》。」《逸史》云：「羅公遠中秋侍明皇宮中翫月，以拄杖向空擲之，化為銀橋，與帝升橋，寒氣侵人，遂至月宮。女仙數百，素練霓衣，舞于廣庭。上問曲名，曰：《霓裳羽衣》。上記其音，歸作《霓裳羽衣曲》。」《鹿革事類》云：「八月望夜，葉法善與明皇游月官，聆月中天樂，問曲名，曰：《紫雲回》。默記其聲，歸傳之，名曰《霓裳羽衣》。」此三家者，皆誌明皇游月宮，其一申天師同游，初不得曲名。其一羅公遠同游，得今曲名。其一葉法善同游，得《紫雲回》曲名，歸易之。雖大同小異，要皆荒誕無可稽據。杜牧之《華清宮》詩：「月聞仙曲調，霓作舞衣裳。」詩家搜奇入句，非決然信之也。又有甚者，《開元傳信記》云：「帝夢游月官，聞樂聲，記其曲名《紫雲回》。」《楊妃外傳》云：「上夢仙子十餘輩，各執樂器，御雲而下。一人曰：『此曲神仙《紫雲回》，今授陛下。』」《明皇雜錄》及《仙傳拾遺》云：「明皇用葉法善術，上元夜自上陽宮往西涼州觀燈，以鐵如意質酒而還，遣使取之，不誣。」《幽怪錄》云：「開元正月望夜，帝欲與葉天師觀廣陵，俄虹橋起殿前，師奏請行，但無回顧。帝步上，高力士、樂官數十從，頃之，到廣陵。士女仰望，曰：『仙人現。』師請令樂官奏《霓裳羽衣》一曲，乃回。後廣陵奏：『上元夜仙人乘雲西來，臨孝感寺，奏《霓裳羽衣曲》而去。』上大悅。」唐人喜言開元天寶事，而荒誕相凌奪如此，將使誰信之？予以是知其他飾以神怪者，皆不足信也。王建詩云：「弟子歌中留一色，聽風聽水作霓裳。」歐陽永叔《詩話》以不曉聽風聽水為恨。蔡條《詩話》云：出

唐人《西域記》。龜茲國王與臣庶知樂者，于大山間聽風水聲，均節成音。後翻入中國，如《伊州》、《甘州》、《涼州》，皆自龜茲致。此說近之，但不及《霓裳》。予謂《涼州》定從西涼來，若《伊》與《甘》，自龜茲致，而龜茲聽風水造諸曲，皆未可知。王建全章，餘亦未見。但「弟子歌中留一色」，恐是指梨園弟子，則何豫于龜茲？置之勿論可也。按唐史及唐人諸集、諸家小說，楊太真進見之日，奏此曲導之。妃亦善此舞，帝嘗以趙飛燕身輕，成帝為置七寶避風臺事戲妃，曰：「爾則任吹多少。」妃曰：「《霓裳》一曲，足掩前右。」而宮妓佩七寶瓔珞舞此曲，曲終珠翠可掃。故詩人云：「貴妃宛轉侍君側，體弱不勝珠翠繁。冬雪飄飄錦袍暖，春風蕩漾霓裳翻。」又云：「天閣沈沈夜未央，碧雲仙曲舞霓裳。一聲玉笛向空盡，月滿驪山宮漏長。」又云：「霓裳一曲千峰上，舞破中原始下來。」又云：「漁陽鼙鼓動地來，驚破霓裳羽衣曲。」又云：「世人莫重霓裳曲，曾致干戈是此中。」又云：「雲雨馬嵬分散後，驪宮無復聽霓裳。」又云：「霓裳滿天月，粉骨幾春風。」帝為太上皇，就養南宮，遷于西宮，梨園弟子玉琯發音，聞此曲一聲，則天顏不怡，左右獻欬。其後憲宗時，每大宴，間作此舞。文宗時，詔太常卿馮定，采開元雅樂，製《雲韶雅樂》及《霓裳羽衣曲》。是時四方大都邑及士大夫家，已多按習，而文宗乃令馮定製舞者，疑曲存而舞節非舊，故就加整頓焉。李後主作《昭惠后誄》云：「《霓裳羽衣曲》，綿茲喪亂，世罕聞者。獲其舊譜，殘缺頗甚。暇日與后詳定，去彼淫繁，定其缺墜。」蓋唐末始不全。《蜀檮杌》稱：「三月上巳，王衍宴怡神亭，衍自執板唱《霓裳羽衣》、《後庭花》、《思越人》曲。」決非開元全章。《洞微志》稱：「五代時，齊州章丘北村任六郎，愛讀書，好湯餅，得犯天麥毒疾，多唱異曲。八月望夜，待月私第，六郎執板大譟一曲。有水鳥野雀數百，集其舍屋傾聽。自道曰：「此即昔人《霓裳羽衣》者。」眾請于何得，笑而不答。」既得之邪疾，使此聲果傳，亦未足信。按明皇改《婆羅門》為《霓裳羽衣》，屬黃鍾商。云：時號越調，即今之越調是也。白樂天《嵩陽觀夜奏霓裳》詩云：「開元遺曲自淒涼，況近秋天調是商。」又知其為黃鍾商無疑。歐陽永叔云：「人間有《瀛府》、《獻仙音》二曲，此其遺聲。」《瀛府》屬黃鍾宮，《獻仙音》屬小石調，了

不相干。永叔知《霓裳羽衣》為法曲，而《瀛府》、《獻仙音》為法曲中遺聲，今合兩個宮調作《霓裳羽衣》一曲遺聲，亦太疏矣。《筆談》云：「蒲中逍遙樓楣上，有唐人橫書，類梵字，相傳是《霓裳譜》，字訓不通，莫知是非。或謂今燕部有《獻仙音》曲，乃其遺聲。然《霓裳》本謂之道調法曲，《獻仙音》乃小石調爾。」又《嘉祐雜志》云：「同州樂工翻河中黃幡綽《霓裳譜》，鈞容樂工任守澄以為非是，別依法曲造成。教坊伶人花日新見之，題其後云：『法曲雖精，莫近《望瀛》。』」予謂《筆談》知《獻仙音》非是，乃指為道調法曲，則無所著見。獨《理道要訣》所載，係當時朝旨，可信不誣。《雜志》謂同州樂工翻河中黃幡綽譜，雖不載何宮調，安知非逍遙樓楣上橫書耶？今並任守澄譜皆不傳。樂天《和元微之霓裳羽衣曲歌》云：「磬簫箏笛遞相攙，擊鞞彈吹聲遞進。」注云：「凡法曲之初，眾樂不齊，惟金石絲竹次第發聲，霓裳序初亦復如此。」又云：「散序六奏未動衣，陽臺宿雲慵不飛。中序擘騷初入拍，秋竹竿裂春冰拆。」注云：「散序六遍無拍，故不舞，中序始有拍，亦名拍序。」又云：「繁音急節十二遍，跳珠撼玉何鏗錚。翔鸞舞了卻收翅，喉鶴曲終長引聲。」注云：「《霓裳》十二遍而曲終，凡曲將終，皆聲拍促速，惟《霓裳》之末，長引一聲。」《筆談》云：「《霓裳曲》凡十二疊，前六疊無拍，至第七疊方謂之疊遍，自此始有拍而舞。」《筆談》，沈存中撰。沈指《霓裳羽衣》為道調法曲，則是未嘗見舊譜。今所云豈亦得之樂天乎？世有般涉調《拂霓裳曲》，因石曼卿取作傳踏，述開元天寶舊事。曼卿云：本是月宮之音，翻作人間之曲。近夔帥曾端伯增損其辭，為勾遺隊口號，亦云開寶遺音。蓋二公不知此曲自屬黃鍾商，而《拂霓裳》則般涉調也。宣和初，普州守山東人王平，詞學華瞻，自言得夷則商《霓裳羽衣譜》，取陳鴻、白樂天《長恨歌傳》，並樂天《寄元微之霓裳羽衣曲歌》，又雜取唐人小詩長句，及明皇、太真事，終以微之《連昌宮詞》，補綴成曲，刻板流傳。曲十一段，起第四遍，第五遍、第六遍、正擷、入破、虛催、袞、實催、袞、歇拍、殺袞，音律節奏，與白氏歌注大異。則知唐曲今世決不復見，亦可恨也。又唐史稱：客有以按樂圖示王維者，無題識。維徐曰：「此《霓裳》第三疊最初拍也。」客未然，引工按曲，乃信。予嘗笑之，霓裳第一

至第六疊無拍者，皆散序故也。類音家所行大品，安得有拍？樂圖必作舞女，而霓裳散序六疊以無拍故不舞。又畫師于樂器上，或吹或彈，止能畫一個字，諸曲皆有此一字，豈獨《霓裳》？唐孔緯拜官教坊，優伶求利市，緯呼使前，索其笛，指竅問曰：「何者是《浣溪沙》孔籠子？」諸伶大笑。此與畫圖上定曲名何異。

[3.37역] 예상우의곡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³⁷⁾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 다른데, 내가 단언해서 “서량(西涼)에서³⁸⁾ 지어졌고, 명황제³⁹⁾가 윤색해서 쉽사리 아름다운 명성을 얻었으니 그밖에 신기하면서 괴이하게 꾸며낸 것은 모두 믿을 수 없다.”라고 했다. 《당사(唐史)》에 이르길, “하서절도사(河西節度使) 충헌공(忠獻公) 양경(楊敬)⁴⁰⁾이 모두 12편을 현종에게 바쳤다.”⁴¹⁾라

37)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 : 본디 서량(西涼) 지역에서 전래하여 당 현종(唐玄宗) 개원(開元) 연간에 하서 절도사(河西節度使) 양경충(楊敬忠)이 바친 가곡이다. 처음 이름은 〈과라문곡(婆羅門曲)〉이었는데, 현종이 이것을 윤색(潤色)하고 아울러 가사를 지어서 이 이름으로 고쳤다고 한다. 그러나 전설에는, 당 현종(唐玄宗)이 꿈에 월궁(月宮)에 올라가 월궁의 선녀들이 무지갯빛 치마와 새털로 된 하얀 옷을 입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곡을 물으니 〈예상우의〉라 하였다. 깨어나 이를 본떠서 〈예상우의곡〉과 〈예상우의무〉를 만들어 양귀비(楊貴妃)에게 추게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온 말이다.

38) 서량(西涼)에서 : 지금 간쑤성 지역으로 전통적인 국경지역이다. 당나라 때 이곳을 수비하던 하서 절도사(河西節度使) 양경충(楊敬忠)이 채집하여 당 현종에게 바쳤고, 현종이 윤색하고 각색하였다.

39) 명황제(明皇帝) : 당 현종(唐玄宗)을 가리킨다. 그의 시호가 지도대성대명효황제(至道大聖大明孝皇帝)이기 때문에, 이를 줄여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40) 양경충(楊敬忠) : 현종이 꿈에 방사(方士)와 월궁(月宮)에서 놀다가 그 음악을 듣고 돌아와 지었다는 내용으로 양경충(楊敬忠)이 지어 바쳤다는 설과, 양경술(楊敬述)이 지었다는 설 등이 있다.

41) 양경(楊敬)이 12편을 현종에게 바쳤다 : 〈예상우의곡〉은 당대(唐代)의 저명한 법곡(法曲) 이름으로, 당 현종(唐玄宗) 개원(開元) 연간에 하서 절도사(河西節度使) 양경충(楊敬忠)이 바친 가곡이다. 처음 이름은 〈바라문곡(婆羅門曲)〉이었는데, 현종이 이것을 윤색(潤色)하고 아울러 가사를 지어서 이 이름으로 고쳤다고 한다. 그러나 전설에는, 당 현종(唐玄宗)이 꿈에 월궁(月宮)에 올라가

고 하였으며, 백거이(白居易)의 〈화원미지예상우의곡가(和元微之霓裳羽衣歌曲)〉에 이르기를, “유래가 있어 능통한 분야에 각기 주장하는 이가 있나니, 양경이 음악을 창작하고 제왕이 악보를 지었다.”라고 했다. 자주(自註)에 이르기를, “개원(開元)⁴² 중엽에 서량절도사 양경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다. 정우(鄭愚)⁴³의 〈진양문시(津陽門詩)〉⁴⁴주석에도 역시 “서량부 도독 양경이 지어 바쳤다”라고 하였다. 내가 또 《당사(唐史)·돌궐전(突厥傳)》을 살펴보니, 개원 연간에 양주 도독 양경술이 돈욕곡(墩欲谷)⁴⁵에게 패배하자 흰옷을 입고 양주⁴⁶의 사무⁴⁷를 검교(檢校)⁴⁸하였다. 양주(涼州)의

월궁의 선녀들이 무지갯빛 치마와 새털로 된 하얀 옷을 입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곡을 물으니 〈예상우의〉라 하였다. 깨어나 이를 본떠서 〈예상우의곡〉과 〈예상우의무〉를 만들어 양귀비(楊貴妃)에게 추게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온 말이다.

- 42) 개원(開元) : 당(唐)나라 현종의 첫 번째 연호로 713~741년에 해당된다.
- 43) 정우(鄭愚) : 번우(番禺) 사람으로 당나라 함통(咸通) 연간에 관찰계관(觀察桂管)이 되었고, 조정에 들어와 예부시랑이 되었다. 황소(黃巢)의 난을 평정한 뒤에 남해(南海)의 출진(出鎮)하였고 마지막에는 상서좌복야가 되었다. 유명한 시 2편이 전한다. 《전당시》에 수록된 《범석기해(泛石岐海)》와 《취제광주사원(醉題廣州使院)》이 그것이다.
- 44) 진양문시(津陽門詩) : 당나라 시인 정우가 지은 7언시로 《전당시》에 수록되었다. 첫부분만 소개한다. “津陽門北臨通達 雪風獵獵飄酒旗 泥寒款段蹶不進 疲童退問前何爲……”
- 45) 돈욕곡(墩欲谷) : 생년은 646年이고 줄연은 미상이다. 후돌궐(後突厥) 한국(汗國)의 유족이다. 당나라 시대에 출생하여 관직이 비가돈욕곡배라막하달간(毗伽墩欲谷裴羅莫賀達干)에 이르렀다. 돌궐 칸의 조정과 돌궐의 사임을 중건하여 돌궐족을 부흥시켰다. 차례로 골돌록(骨咄祿), 목철(默啜), 비가가한(毗伽可汗) 세 조정을 섬겼고 비가가한의 장인이기도 하다.
- 46) 양주(涼州) : 지금의 간쑤성 지역으로 서량의 이칭이며 서량주(西涼州)라고도 한다. 《신당서》 권22 〈예악지(禮樂志)〉에 “양주곡은 본래 서량(西涼)에서 바쳤는데, 그 소리가 본래 궁조(宮調)이고 대편(大遍)과 소편(小遍)이 있었다. 당나라 때에 세상이 태평하므로 사람들이 보통 악곡에 싫증나서 이상한 악곡, 특히 외국의 악곡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서량(西涼)에서 중앙아시아 지방 민족의 악곡을 들여왔으므로, 그 곡조를 양주곡이라 하였다.
- 47) 사무 : 개원 9년(721) 돈욕곡이 군대를 돌려 적정(赤亭)을 나아가서 양주(涼州)의 양과 말을 노략질했다. 이 때 양경술(楊敬述)이 양주도독(涼州都督)이었는데, 부장(副將) 노공리(盧公利)와 판관(判官) 원정(元澄)을 보내 군대를 내서

사무를 저술하였다고 하니 백거이와 정우의 설명은 옳다.

유우석(劉禹錫)⁴⁹⁾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개원 천자 ⁵⁰⁾ 께서 세상만사 만족스럽고	開元天子萬事足
당시 광경이 빠르게 사라지니 애석할 뿐	惟惜當年光景促
삼향역 ⁵¹⁾ 의 두둑 위에서 신선산 바라보다	三鄉陌上望仙山
돌아오면서 〈예상우의곡〉을 지었네	歸作霓裳羽衣曲
신선의 마음은 여기로부터 요지 ⁵²⁾ 에 있고	仙心從此在瑤池

돈육곡 무리를 막고 공격하게 했다. 돈육곡은 “양경술이 만약 성을 지키고 스스로를 굳게 잠그고 있다면 바로 그와 화해를 할 것이지만 만약 그가 병사를 출동시켜 서로 맞부딪치게 된다면 결전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승리한 기세에 편승해서 반드시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노공리 등의 군사들이 산단현(刪丹縣)에 이르러 적을 만나자 원징이 병사들에게 팔을 걷고 활사위를 당기도록 하다가 급하게 소매를 묶도록 했는데, 마침 눈보라로 일고 찢어져 모두가 활과 화살을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관군이 대패했고 원징은 몸만 빠져나와 도망가야 했다. 이에 양경술은 패전의 책임을 지고 관작을 삭탈 당해 백의(白衣)를 입고 양주도독의 사무를 대리(檢校)한 일을 가리킨다.

- 48) 검교(檢校) : 정원(定員) 이상으로 벼슬자리를 임시 늘이거나, 공사(公事)를 맡기지 않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던 말이다. 예를 들어 검교 문하 시중(檢校門下侍中)·검교 정승(檢校政丞) 등이 있다.
- 49) 유우석(劉禹錫) : 772~842. 당나라 중산(中山) 사람으로 자는 몽득(夢得)이다. 벼슬은 감찰어사(監察御史)·태자빈객(太子賓客) 등을 역임하였고, 저서에 《유빈객문집(劉賓客文集)》이 있다. 특히 시문에 뛰어나 백거이(白居易)는 그의 시서(詩叙)에 시호(詩豪)라고 찬양하였다. 《唐書 卷168》
- 50) 개원 천자 : 당 현종을 가리킨다. 개원은 그의 연호(年號)이다.
- 51) 삼향 : 당대(唐代)의 저명한 법곡(法曲) 이름이다. 당 현종(唐玄宗) 개원(開元) 연간에 하서 절도사(河西節度使) 양경충(楊敬忠)이 바친 가곡으로, 처음 이름은 바라문곡(婆羅門曲)이었는데, 현종이 이것을 윤색(潤色)하고 아울러 가사를 지어서 이 이름으로 고쳤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현종이 삼향역(三鄉驛)에 올라가 여아산(女兒山)을 바라보고, 월궁(月宮)에 올라가 노닐면서 선녀들의 노래를 비밀리에 기록하여 돌아와서 이 곡의 가사를 지었다고도 한다.
- 52) 요지(瑤池) : 고대 전설 상 곤륜산(崑崙山) 위에 있는 연못의 이름으로 서왕모가 거처하는 곳이다. 주 목왕(周穆王)이 정사는 돌보지 않은 채 팔준마(八駿馬)가 모는 수레를 타고 천하를 두루 유람하다가 곤륜산 꼭대기의 요지에 이르러 서왕모의 환대를 받고 연회를 가졌다고 한다. 《列子·周穆王》

삼청 ⁵³ 과 팔경 ⁵⁴ 이 서로 쫓아 따른다오	三清八景相追隨
천상에서는 홀연 흰 구름 타고 떠나니	天上忽乘白雲去
세상에는 공연히 추풍사 ⁵⁵ 만 남았구려	世間空有秋風詞

이평(李肱)⁵⁶의 <예상우의곡>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개원 연간은 태평성세라서	開元太平時
은 나라에 풍년들어 축하하네	萬國賀豐歲
이원 ⁵⁷ 의 제자들이 옛 노래를 바치니	梨園進舊曲
옥좌에는 새로 지은 곡이 흐르네	玉座流新製
홀륭한 피리연주 ⁵⁸ 는 들쭉날쭉 ⁵⁹ 하고	鳳管迭參差

53) 삼청(三清) : 도교(道教)의 이른바 삼동교주(三洞教主)가 거처하는 최고의仙境(仙境)이다. 삼청경(三清境)의 준말로, 옥청(玉清), 상청(上清), 태청(太清)을 말한다.

54) 팔경(八景) : 중국 소수(瀟水)와 상수(湘水) 부근에 있는 여덟 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 팔경은 평사낙편(平沙落雁), 원포귀범(遠浦歸帆), 산시청람(山市晴嵐), 강천모설(江天暮雪), 동정추월(洞庭秋月), 소상야우(瀟湘夜雨), 연사만종(煙寺晚鐘), 어촌낙조(漁村落照)이다. 《夢溪筆談·書畫》

55) 추풍사(秋風詞) : 한 무제(漢武帝)가 지은 <추풍사(秋風辭)>를 말한다. 그가 하동(河東)을 순시할 적에 배를 띄우고 신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매우 즐거워지자 <추풍사>를 지어 불렀는데, 그중에 “누선을 띄워 분수를 건너감이어, 중류를 가로지르며 흰 물결을 날리도다.(泛樓船兮濟汾河, 橫中流兮揚素波.)”라는 구절이 있다. 특히 인생의 무상함을 슬퍼하는 구절이 많이 들어 있었다.

56) 이평(李肱) : 농서 성기(陝西成紀, 지금의 간쑤성 정녕(靜寧))사람으로 생몰년은 미상이다. 당 문종(文宗) 개성(開成) 2년(837)년 문과에 장원급제 하였다. 동기생 중에 이상은(李商隱)이 있었고 시제는 《금슬합주부(琴瑟合奏賦)》와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이 있다.

57) 이원(梨園) : 배우들의 기교를 닦는 곳이고 제자란 곧 연극하는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다. 당 현종 때 장안의 금원(禁苑) 안에 있는 이원에서 제자 3백 명을 뽑아 속악(俗樂)을 가르쳤던 데서 연유된 것이다.

58) 피리 연주 : 봉관(鳳管)은 봉황 같은 아름다운 피리를 말하는데 특히 생황(笙簞)이나 생황과 통소로 연주하는 음악을 아름답게 부르기도 한다.

59) 들쭉날쭉 : 원문 ‘참치(參差)’는 《시경》 <주남(周南) 관저(關雎)>에 “들쭉날쭉한 마름 나물을 좌우로 취하여 가리도다. 요조한 숙녀를 거문고와 비파로 친애하도다. 들쭉날쭉한 마름 나물을 좌우로 삶아 올리도다. 요조한 숙녀를 종과

신선 노을 옷⁶⁰)은 경쟁하듯 흔들며 끈다

霞衣競搖曳

원진(元縝)의 <법곡(法曲)>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종황제가 만든 편곡⁶¹)은 새로운 모양이 많아

明皇度曲多新態

음침한 분위기를 전환시켜 침착하게 바꾸네

宛轉浸淫易沈著

붉고 흰 복숭아 오얏꽃에서 이름 가져다

赤白桃李取花名

아름다운 의상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더라

霓裳羽衣號天落

유우석의 시에 “현종황제가 여계산(女几山)⁶²)을 바라보고 뜻을 가지고 신선을 찾았기 때문에 물러나서 이 곡을 지었다.”라고 하였는데, 당시에 지었던 시는 지금 전해지지 않으니 이 노래가 서량이 현남한 곡 이후라고 의심된다. 현종황제가 삼향을 조망하자 흥이 일어나 신선을 찾아서 이로 인하여 곡을 이름 지었다. “천사에서 홀연 흰 구름 타고 떠나가니, 세상에 공연히 <추풍사>만 남았네.”라는 구절은 아무런 공을 이루지 못한 것을 풍자한 것이다. 이평의 시에서 “현종이 이원의 이 곡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곡을 지었다.”라고 했다. 원진의 시에서 “현종이 이 곡이 만들었는데 새로운 형태가 많다. 무지개 치마와 깃털 저고리는 인간 세상에 있는 복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진은 <법곡>의 내용을 지목하였고 백거이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복으로 즐겁게 하도다.[參差荇菜 左右采之 窈窕淑女 琴瑟友之 參差荇菜 左右采之 窈窕淑女 鍾鼓樂之] 하였다. 피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楚辭 九歌》

60) 신선 노을 옷 : 꿰맬 필요가 없이 구름과 노을(雲霞)로 지은 옷이라는 뜻으로, 보통 선인(仙人)을 형용할 때 쓰는 표현이다.

61) 편곡 : 원문 ‘度曲’은 가사나 가곡을 창작하거나 가곡을 부르는 것을 말한다. 《한서(漢書)·원제기원(元帝紀贊)》에 “금슬을 연주하고, 통소를 불며, 스스로 가곡을 지어 노랫소리를 입히며 박자를 나누니 오묘함이 궁극에 이른다.[鼓琴瑟 吹洞簫 自度曲 被歌聲 分判節度 窮極幼眇]”라는 내용이 나온다.

62) 여계산(女几山) : 하남성(河南省) 복창현(福昌縣)의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두란향(杜蘭香)이란 여인이 신녀(神女)가 되어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궤(几)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법곡〉⁶³에서 〈예상우의곡〉을 노래 불렀다. 정화(政和)⁶⁴의 세상은 다스려져 음악이 의기양양하다. 개원 연간의 사람들이 즐겁고 또한 편안하였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그것은 법부⁶⁵의 한 종류가 되는지 안다. 저 서량절도사가 이 곡을 바쳤는데, 세 사람도 현종황제가 만들었다고 하였다. 나는 이로써 서량절도사가 지었고 현종황제가 윤택한 것이라 알았다.

두우(杜佑)⁶⁶의 《이도요결(理道要訣)》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보(天寶) 13년⁶⁷ 7월에 여러 악곡의 이름을 고쳤는데 중사(中使)⁶⁸가 구림(繆琳)⁶⁹으로 보충하여 성지(聖旨)⁷⁰를 선포하였고 태상시(太常寺)⁷¹로

63) 법곡(法曲) : 이원(梨園)의 법부(法部)를 가리킨다. 부(府)는 부(部)의 오기(誤記)로, 당 현종 때 이원 제자들에게 법부를 구성하여 가르쳤다. 법부는 원래 법곡(法曲)으로, 악곡의 이름이다. 여기에서는 음악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뜻으로, 즉 궁중의 음악단을 말한다. 《唐書 禮樂志 12》

64) 정화(政和) : 북송(北宋) 휘종(徽宗)의 네 번째 연호로 1111~1118에 해당된다.

65) 법부 : 원문은 ‘法曲’인데, 뒤에 중복되어 ‘법부(法部)’의 오자가 확실하므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66) 두우(杜佑) : 735~812, 735~812. 자는 군경(君卿), 시호는 안간(安簡)이며, 당나라 때 학자로 덕종(德宗)·순종(順宗)·헌종(憲宗) 때 재상을 지냈다. 저서로 《통전(通典)》, 《이도요결(理道要訣)》, 《관씨지략(管氏指略)》, 《빈좌기(賓佐記)》 등이 있다.

67) 천보(天寶) 13년 : 천보는 당나라 현종(玄宗)의 연호로 742년부터 755년까지이다. 천보 13년은 755년을 말한다.

68) 중사(中使) : 궁중(宮中)에서 파견한 사자(使者)인데 대부분 환관(宦官)을 지칭한다.

69) 구림(繆琳) : 중국 서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훌륭한 옥으로, 《이아(爾雅)》 〈석지(釋地)〉에, “서북 지역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곤륜산의 구림과 낭간이 있다. [西北之美者 有昆崙虛之繆琳琅玕焉]”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가리킨다.

70) 성지(聖旨) : 원문 ‘진지(進止)’는 진퇴와 같은 말로 당나라 때부터 성지 받드는 것을 진지라 하였는데, 대개 성지가 나오라 하면 나오고 그치라 하면 그치는 데서 유래하였다.

71) 태상시(太常寺) : 교묘(郊廟)에 올리는 예악과 제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관서로 상서성(尚書省) 예부의 지휘를 받았는데, 당나라 고종(高宗)과 측천무후 때 태상(太常)이나 사례(司禮)라고 관서 이름을 고친 적도 있었다. 《唐六典 太常寺》

하여금 비석에 새기게 했다. 내용에 황종상(黃鍾商)⁷²의 <파라문곡(婆羅門曲)>을 <예상위의곡>으로 고쳤다.”라고 되어있다. <진양문시(津陽門詩)>의 주석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섭법선(葉法善)⁷³이 현종 황제를 이끌어 달나라 궁전에 들어가자 음악을 듣고 돌아오는데 피리로 그 절반을 묘사 하였는데, 마침 서량 도독 양경이 나아가 모아 <파라문>곡⁷⁴을 지어 올리자 성조가 딱 맞아 떨어져서 마침내 달 속에서 들었던 것으로 대강 차례를 지었고 양경이 지어서 바친 부분이 누락되어 <예상위의곡>을 지었다.”라고 되어있다. 월궁에서의 일은 황당무계하지만, 다만 서량도독이 <파라문곡>을 지어 바치고 상황제(上皇帝)⁷⁵가 운색하니 또 쉽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명백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인록(異人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개원 6년(716)에 당나

- 72) 황종상(黃鍾商) : 황종지상(黃鍾之商)의 줄임말로 황종이 궁이고, 태주가 상이 되는 상선법(尚旋法)을 말한다. 동양 음악은 한 옥타브 내에 12개의 음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음이 황종이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황종(黃鍾)·대려(大呂)·태주(太簇)·협종(夾鍾)·고선(姑洗)·중려(仲呂)·유빈(蕤賓)·임종(林鍾)·이척(夷則)·남려(南呂)·무역(無射)·응종(應鍾)이다. 이 가운데 홀수의 음이 양률인 옥률이고, 짝수의 음이 음률인 옥려이다.
- 73) 섭법선(葉法善) : 당나라 현종(玄宗)에게 총애를 받았던 도사 섭법선(葉法善)을 말한다. 그는 사람의 도술로 월궁(月宮)에 올라가 보았는데, 월궁 항아들이 무지개같은 치마와 새털로 된 옷을 입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와서 그 곡조대로 작고하여 <예상위의곡(霓裳羽衣曲)>과 <예상위의무(霓裳羽衣舞)>를 창작하여 그것을 양귀비에게 추게 하였다.
- 74) 파라문곡(婆羅門曲) : <예상위의곡(霓裳羽衣曲)>의 처음 이름이 파라문곡(婆羅門曲) 이었는데, 서량(書涼 국명)에서 전래하여 당(唐)나라 하서 절도사(河西節度使) 양경술(楊敬述)이 당 명황(唐明皇 당 현종)에게 바쳤다. 당 현종이 이를 운색하여 이것을 운색(潤色)하고 가사를 지어서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당서(唐書)》에는 혹은 월궁(月宮)의 곡조와 파라문곡을 조화시켜 만든 곡이라고 되어있다.
- 75) 상황제(上皇帝) : 당 현종의 고사이다. 안녹산(安祿山)이 반기를 들자 당 현종이 촉(蜀) 땅으로 피난가면서 황태자를 천하병마대원수(天下兵馬大元帥)로 삼고 배면(裴冕)을 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 삼아 딸려서 보냈다. 두홍점(杜鴻漸)과 최의(崔漪) 등이 황태자를 권하여 영무(靈武)에서 제위에 오르게 하였는데, 결국 양경(兩京)을 수복하고 나서 촉 땅으로 들어가 태상황제를 맞이하였다. 《唐紀》

라 현종이 신천사(申天師)⁷⁶와 함께 한가위 달밤에 달 속에서 노닐다가 어느 큰 관부(官府)를 보고 현판에 ‘광한청허지부(廣寒淸虛之府)’⁷⁷라고 쓰여 있었고, 군사들이 문을 지키고 있어 들어올 수 없었다. 신천사가 상황제를 이끌고 자옥한 안개 속을 뛰어넘는데 아래로 옥빛 성곽을 바라보니 신선과 도사가 구름을 타고 학을 몰아 그 사이를 오고갔다. 미녀⁷⁸ 10여 명이 넓은 마당의 큰 계수나무 아래에서 춤추며 웃었고 음악 소리는 떠들썩하지만 맑고 수려하다. 상황제가 돌아오자 성물을 편집하여 음악을 만들었고, <예상우의곡>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일사(逸史)》⁷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공원(羅公遠)⁸⁰이 한가위에 당나라 현종을 모시고 궁중에서 달빛을 완상하였다. 짙고 있던 지팡이로 허공을 향해 내던지자 은빛 다리로 변화하였다. 황제와 함께 다리에 오르자 한기가 사람을 엄습하였고 마침내 달나라 궁전에 이르렀다. 선녀 수백 명이 흰 명주로 만든 무지개 저고리를 입고서 넓은 마당에서 춤을 추었다. 황제께서 곡명을 하문하니 <예상우의곡>이라고 대답하였다. 황제께

76) 신천사(申天師) : 천사는 도사(道士)의 이칭이다. 당 현종이 팔월 보름에 도사 신천사·홍도객(洪都客) 등과 함께 도술을 부려 월궁(月宮)에 누워 놀았는데, 패방을 보니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라고 쓰여 있었다. 그곳에 흰 옷을 입은 미녀 10여 사람이 흰 옷을 입고 흰 난새를 타고 광한전 뜨락 큰 계수나무 아래에서 춤을 추었다. 현종이 이를 보고 돌아와 <예상우의곡>을 지었다고 한다. 《古今事文類聚 前集 卷11 遊廣寒宮》

77) 광한청허지부(廣寒淸虛之府) : 달 속의 선궁(仙宮)인 광한궁(廣寒宮)의 누각이라는 말로, 달의 궁궐을 가리킨다. 《용성록(龍城錄)》에 “당 명황(唐明皇)이 신천사(申天師) 홍도객(鴻都客)과 함께 8월 보름날 밤에 달 속에서 노니는데, 방(榜)을 보니 ‘광한청허지부(廣寒淸虛之府)’라고 쓰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78) 미녀 : 서왕모가 남편에게 준 불사약(不死藥)을 훔쳐 먹고 달 속으로 도망가 달의 선녀가 되었다는 항아(姮娥)를 말하는 것으로, 전하여 하얀 달이나, 항아 같은 미인을 의미한다.

79) 일사(逸史) : 역대의 정사(正史)에서 빠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를 말한다.

80) 나공원(羅公遠) : 나당나라의 도사로, 현종(玄宗) 때 어느 중추절 날 지팡이를 궁중에 던져 큰 은빛 다리를 만들어서 현종과 함께 달에 올라가 선녀 수백 명이 <예상우의곡>에 맞추어 춤추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악관으로 하여금 지상의 <예상우의곡>을 만들게 했다고 한다. 《古今事文類聚 前集 卷11》

서 그 음악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예상우의곡>을 지었다.”라고 되어있다.

《녹혁사류(鹿革事類)》⁸¹⁾에 이르기를, “8월 보름날 밤에 섭법선이 현종 황제와 함께 달나라 궁전을 노닐어 달 속의 천악(天樂)을 듣고 곡명을 하문하니, ‘《자운회(紫雲回)》’라 답하였다. 묵묵히 그 성를을 기억하였다가 돌아와서 전하니 《예상우의》라고 이름 지었다.

이 세 기록은 모두 현종황제가 달나라 궁전을 노닌 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 중 하나는 신천사와 함께 노닐다가 처음에는 곡명을 알지 못했다. 그 다른 하나는 나공원과 함께 노닐다가 지금의 곡명을 알게 되었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섭법선과 함께 노닐다가 <자운회>라는 곡명을 알고서 돌아와 곡명을 바꿨다. 비록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요체는 모두 황당무계하다.

두목(杜牧)⁸²⁾의 <화청궁(華清宮)》⁸³⁾시에 “달에서 신선의 곡조를 듣고, 무지개로 무희의 치마를 지었다.”라고 되어있다. 시인이 기이한 구절을 찾아서 시구에 삽입한 것으로 결코 그렇다고 믿음직하지 않다. 또한 심한 경우도 있는데, 《개원전신기(開元傳信記)》에 이르기를, “황제는 꿈속에서 달나라 궁전에서 노닐었고, 음악 소리를 듣고 그 곡명을 <자운회>를 기억하였다”라고 하였다. 《양비외전(楊妃外傳)》에 이르기를, “황제께서 꿈속에 신선 십여 명과 각기 악기를 잡고 구름을 타고 아래로 내려왔다. 어떤 사람이 ‘이 곡은 신선이 부르는 <자운회>인데 오늘 폐하께 드립니다.’라고 하였다.”라고 되어있다.

《명황잡록(明皇雜錄)》과 《선전습유(仙傳拾遺)》에 이르기를, “현종황

81) 녹혁사류(鹿革事類) : 송나라 사람 채번증(蔡蕃曾)이 엮은 책으로 《녹혁사류》, 《녹혁문류(鹿革文類)》가 각 30권이다. 모두 《광기(廣記)》를 절록(節錄)한 것이다.

82) 두목(杜牧) : 생졸년은 803~852년이고, 자는 목지(牧之), 호는 번천(樊川)이다. 만당(晩唐)의 저명한 시인이자 고문가로 젊어서부터 병법을 논하는 것을 좋아하여 번진(藩鎭) 문제와 용병의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저술을 하였다.

83) 화청궁(華清宮) : 당나라 서쪽 근처에 온천이 있었는데, 그것을 황실의 전용 온천으로 하고, 거기에 궁을 지어서 화청궁(華清宮)이라 하고, 온천은 화청지라 하고서 양귀비와 황상 놀러 갔었다. 《全唐詩 卷521 華清宮三十韻》에 두목(杜牧)의 <화청궁 30운(華清宮三十韻)》가 수록되었다.

체계서 섭법선의 도술을 이용하여 원소절(原宵節) 대보름날 밤에 상양궁(上陽宮)⁸⁴에서 서량주(西涼州)로 등불을 보러 갔다. 철여의(鐵如意)⁸⁵로 술을 저당잡히고 돌아와서는 사신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니 속이지 않았다.”라고 되어있다. 《유괴록(幽怪錄)》에 이르기를, “개원 정월에 보름날 밤에 황제는 섭천사와 함께 광릉(廣陵)⁸⁶을 구경하려 하는데, 갑자기 무지개다리가 궁전 앞에 일어나자 섭천사가 아뢰어 가기를 청하니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황제는 걸어서 다리에 오르자 고력사(高力士)⁸⁷와 악관 수십 명이 따랐다. 얼마 되지 않아 광릉에 이르렀다. 선비와 여인들이 우러러 바라보며 ‘선인이 나타났다’라고 하였다. 섭천사가 악관들에게 <예상우의> 한 곡을 연주하도록 청하고 이내 돌아왔고 훗날 광릉에서 연주했다. ‘원소절 밤에 신선이 구름타고 서쪽으로 와서 효감사(孝感寺)에 이르러 <예상우의곡>을 연주하고 떠났다.’라고 하니 황제께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되어있다. 당나라 사람은 개원·천보⁸⁸의 일을 즐겨 말하는데, 이처럼 허황되고 능멸하는데 장차 그 누가 믿겠는가. 나는 이런 까닭으로 그 밖에 신기

84) 상양궁(上陽宮) : 당나라 궁궐 이름으로 양귀비가 거처하여 현종이 자주 찾았다. 개원 연간인 713~756년에 정월 대보름 관동 행사를 할 때면 으레 상양궁에서 하였다. 영등(影燈)을 크게 설치하고 금중(禁中)에서 전경(殿庭)까지 환하게 햇불을 밝혔다. 《明皇雜錄》

85) 철여의(鐵如意) : 석송(石崇)이 일찍이 무제가 왕개(王愷)에게 하사한 산호수(珊瑚樹)를 철여의로 마구 부수어버렸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의기(意氣)의 호방함을 의미한다.

86) 광릉(廣陵) : 장쑤성 양저우(揚州)시에 위치하였다. 장쑤성 중심에 위치하여 북경과 항주를 잇는 대운하가 흐른다.

87) 고력사(高力士) : 생몰년은 684~762년이다. 당 현종 때의 환관으로 내시성(內侍省)의 직임을 맡아 신중히 사무를 처리한 공로가 인정되어 발해군공(渤海郡公)에 봉해졌다. 현종의 총애를 받아 숙종(肅宗)은 태자로 있을 때에 그를 형으로 삼았다. 안사의 난 때에는 현종을 따라 촉(蜀) 땅에 갔으며, 숙종 상원 1년(760)에 무주(巫州)에 유배되었고, 2년 뒤에 사면되어 돌아가던 중 병사하였다.

88) 개원·천보 : 당 현종의 연호들로 713~741년간이다. 현종은 재위(在位) 44년간이었는데, 초기에 정사를 바로잡아 성당(盛唐) 시대를 이룬 때가 개원 연간(開元年間)이었고, 후기에 양귀비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안록산(安祿山)의 난을 만나 나라가 어지럽게 된 시대가 천보 연간(天寶年間 742~756)이었다.

하고 괴이한 것으로 꾸며낸 것, 모두 믿기에는 부족한지 알았다.

왕건(王建)의 시에 이르기를 “제자의 노래 가운데 한 장면이 머리에 맴 돌고, 바람 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예상우의곡>을 짓네.”라고 하였다. 구양수(歐陽脩)⁸⁹⁾의 《시화(詩話)》에 “새벽에 바람소리 물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한으로 여긴다.”라고 하였다. 채도(蔡絛)⁹⁰⁾의 《시화》에 “출당인(出唐人)의 《서역기(西域記)》⁹¹⁾에 구자국(龜茲國)⁹²⁾의 왕과 신하 중에 음악을 아는 사람이 큰 산속에서 바람소리와 물소리를 듣고 박자를 균일하게 해서 음악을 이루었다. 나중에 번역되어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예컨대 <이주곡(伊州曲)》⁹³⁾, <감주곡(甘州曲)》⁹⁴⁾, <양주곡(涼州曲)》⁹⁵⁾ 같은 것은

89) 구양수(歐陽脩) : 북송(北宋) 때의 문장가로, 자는 영숙(永叔), 호는 취옹(醉翁)·육일거사(六一居士),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한유(韓愈)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매요신(梅堯臣)과 함께 문장으로 천하에 이름이 났다. 저서에 《문충집(文忠集)》, 《집고록(集古錄)》 등이 있다. 《宋元學案 卷4 廬陵學案》

90) 채도(蔡絛) : 송나라 사람으로 자는 약지(約之), 스스로 ‘백남거사(白衲居士)’라고 불렀다. 아버지 경(京)을 받고 국권을 농락하다가 백주(白州)로 유배되어 죽었다.

91) 서역기(西域記) : 중국 당나라 때에 승려 현장(玄奘)이 서역에서 불경을 구한 행적을 기록한 견문록이다. 불교사의 기본 사료로 138개 국가의 불교 상황, 불교 고적, 제도, 풍속 따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12권이 있다.

92) 구자국(龜茲國) : 한(漢)나라 때 서역에 있던 나라 이름으로, 천산(天山) 남쪽 고차(庫車) 지방 일대에 있었다. 효선제(孝宣帝) 때 정길(鄭吉)이 오루성(烏壘城)의 도호(都護)가 된 이후 한나라에 예속되었다. 여기서는 예악과 문물 등 문화의 수준이 보잘것없는 변방 속국을 의미한다.

93) 이주곡(伊州曲) : 당 현종(唐玄宗) 개원(開元) 연간에 서량 절도사(西涼節度使) 개가운(蓋嘉運)이 바쳤다는 상조 대곡(商調大曲)인데, 백거이(白居易)의 시에 “늙어 가는 시름을 어떻게 풀까 생각하다, 소옥에게 이주곡을 새로 부르게 하였다네.[老去將何散老愁 新教小玉唱伊州]”라는 구절이 있다. 《白樂天詩集 卷8 伊州》

94) 감주곡(甘州曲) : 원래 중국 변지의 고을 이름인데, 당 나라 때 그 지명을 따 악곡의 명칭을 삼았음. 이와 같은 악곡으로 양주·이주 등의 지명으로 된 악곡의 명칭이 있다.

95) 양주곡(涼州曲) : 당 나라 때에 세상이 태평함으로 사람들이 보통 악곡에 싫증 나서 이상한 악곡, 특히 외국의 악곡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서량(西涼)에서 중

모두 구자국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 설은 사실에 가깝지만 다만 <예상우의 곡>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내가 생각건대, <양주곡>은 서량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며 <이주곡>과 <감주곡>은 모두 구자국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자국에서 바람소리와 물소리를 듣고 여러 곡을 지어졌다는 설은 모두 사실인지 알 수 없다. 왕건의 전체 문장과 나머지 역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제자가 부른 노래 중에 한 부분이 머리에 맴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원의 제자를 지칭하는 듯 하니 어떻게 구자국보다 먼저 나올 수 있겠는가. 차치 물론하는 것이 좋겠다.

《당사(唐史)》와 당나라 사람이 지은 여러 문집들, 여러 소설가가 지은 소설을 살펴보면 양귀비⁹⁶⁾가 나아가 현종을 뵈 날에 이 곡을 연주하여 황제를 이끌었다. 양귀비 역시 이 춤을 잘 추었는데, 황제가 일찍이 조비연(趙飛燕)⁹⁷⁾의 몸이 가벼워서 한나라 성제(成帝)가 칠보(七寶)의 피풍대(避風臺)를 설치한 고사를 본받아 양귀비와 즐기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마음대로 볼러보고 싶은 것이 많소?”하니, 양귀비가 답하기를 “<예상우의>한 곡이면 충분히 예전의 우수한 곡을 뒤덮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궁중의 기녀가 칠보의 각양각색 구슬을 차고 이 곡에 맞춰 춤을 추었는데, 곡이 끝나자 비취 구슬로 땅을 쓸어버릴 정도였다. 그리하여 어떤 시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귀비는 주변을 돌며 임금 옆에서 모시지만
몸이 약하여 화려한 비취 구슬 건디지 못하네
겨울에 눈보라 휘날려 비단 도포 따뜻하고

貴妃宛轉侍君側
體弱不勝珠翠繁
冬雪飄飄錦袍暖

양아시아지방 민족의 악곡을 들여왔으므로 그 곡조를 양주곡이라 하였다.

96) 양귀비: 원문은 ‘양태진(楊太真)인데, 당 명황의 양귀비의 별호이다. 그는 곧 양국충(楊國忠)의 사촌 누이로 재색이 뛰어나서 명황의 총애를 독차지했다가, 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명황과 함께 피란하여 마외역(馬嵬驛)에 이르러 관군으로부터 책망을 당하고 목매어 죽었다.

97) 조비연(趙飛燕): 한 성제(漢成帝)에게 총애받던 미녀로,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출 정도로 몸이 가벼웠다 한다.

봄바람은 휩쓸자 무지개 치마 펴리네

春風蕩樣霓裳翻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 높은 누각에 어둑어둑 아직 한밤이 아니건만	天閣沈沈夜未央
푸른 구름 노래한 신선의 곡에 무지개 옷 입고 춤추네	碧雲仙曲舞霓裳
옥피리 한 곡조에 텅 빈 허공에 울리고	一聲玉笛向空盡
달은 여산(驪山) ⁹⁸ 에 가득한데 물시계는 더디구나	月滿驪山宮漏長

또 이르기를 “예상우의곡이 천 봉우리 위에 울리고, 중원에서 춤 마치자 비로소 내려오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어양(漁陽)⁹⁹의 군대의 진군 북소리는 땅을 울리며 다가오는데, 놀라서 예상우의곡이 끝나치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예상우의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 방패와 창이 곡 중에 구비되었구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연인을 마외산(馬嵬山)¹⁰⁰에서 이별한 뒤에, 여궁(驪宮)¹⁰¹에 다시는 예상우의곡이 들리지 않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예상우의곡이 하늘에 뜬 달에 가득하고, 백골이 가루가 되어 봄바람을 얼마나 겪었던가.”라고 하였다.

- 98) 여산(驪山) : 역산(鬲山)이라고도 쓴다. 섬서성(陝西省) 임동현(臨潼縣) 동남쪽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서 진 시황(秦始皇)의 능묘가 있으며, 당 현종(唐玄宗) 때에는 양 귀비(楊貴妃)가 목욕하던 화청지(華清池)가 있다.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 “쌀쌀한 봄날 화청궁 온천에 목욕하게 하니, 매끄러운 온천 물에 기름 같은 살결 씻었네.(春寒賜浴華清池 溫泉水滑洗凝脂)”라고 되어 있다.
- 99) 어양(漁陽) : 당 현종 천보 14년(755) 11월에 안록산이 어양에서 20만 대군으로 반란을 일으켜 12월에 수도를 함락하자, 현종은 축(蜀)으로 몽진하고 황태자 즉 숙종이 영무(靈武)에서 즉위한 뒤에 군사를 지휘하여 난리를 평정하였다.
- 100) 마외산(馬嵬山) : 통칭 마외파(馬嵬坡)라 불리고 산이 아닌 땅이름이다.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흥평현(興平縣) 서쪽 25리 마외진(馬嵬鎭). 안록산의 반란 때 당 현종이 서행(西幸)하다가 여기에 와서 부득이 양귀비를 난군에게 내어 주어 목매어 죽이게 하였다.
- 101) 여궁(驪宮) : 화청궁(華清宮)을 여산(驪山) 아래에 있다. 주98) 참조.

현종께서 태상황¹⁰²이 되었고 남궁(南宮)에 나아가 보양하다가 서궁(西宮)으로 옮겼다. 이원의 제자들이 옥피리를 불어 소리를 내자, 이 한 곡을 듣자 황제의 안색이 기뻐하지 않았고 곁을 지키는 신하들이 탄식하며 흐느껴 울었다. 그 뒤에 현종(憲宗) 시대에 매년 큰 연회를 열 때마다 중간에 이 춤을 추었다. 문종(文宗) 시대에는 태상시의 경대부 풍정(馮定)¹⁰³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개원 연간에 유행하였던 아악(雅樂)을 채집하여 <운운아악(雲韶雅樂)>과 <예상우의곡>을 만들었다. 이 때 사방의 큰 도읍지와 사대부 집안에서 아주 많이 찾아서 익혔는데, 문종은 이내 풍정으로 하여금 무용곡을 만들게 한 것은 곡의 존재와 무용의 박자가 옛것이 아닐 것이라 의심하였기 때문에 채집한 것을 가지고 첨가하여 정돈한 것이다.

이욱(李煜)¹⁰⁴이 지은 <소혜후뢰(昭惠周后誄)>¹⁰⁵에 이르기를 “<예상우의곡>은 면면히 이어지다 난리통에 상실되어 세상에 이 노래를 들은 사람이 드물다. 옛 악보를 찾아냈지만 훼손 정도가 자못 심하다. 한가한 날에 소혜후와 함께 자세히 확정해서 저 곡에 음탕하고 번잡한 부분을 제거하

102) 태상황 : 남내(南內)는 본래 당나라 흥경궁(興慶宮)을 지칭한 말이다. 당시 장안을 삼내(三內)로 구분하여, 서쪽에 있는 황성을 서내(西內)라 하고 대명궁(大明宮)을 동내(東內)라 하고 흥경궁을 남내라고 불렀다. 안사(安史)의 난 이후 태자였던 숙종이 즉위하고 현종(玄宗)은 태상황이 되어 실권을 잃은 채 흥경궁에 머물렀는데 양궁 간의 알력으로 현종의 지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103) 풍정(馮定) : 《신당서·예악지(新唐書·禮樂志)》에 문종이 태상시 경대부 풍정에게 명령하여 현조시대의 음악과 규칙을 준용하여 당시를 대표할 만한 각 곡을 창작하도록 하였다. 풍정이 명을 받고 고심 끝에 《운소법곡(雲韶法曲)》을 지었고 문종이 노래를 듣고 감상한 이후에 신령이 생동하는 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여 크게 칭찬하였다.

104) 이욱(李煜) : 남당(南唐)을 세운 이후주(李後主) 곧 이욱(937~978)을 말한다. 961년에 지금의 남경(南京)인 금릉(金陵)에서 즉위하였기 때문에 세칭 남주라고 한다. 그는 시로서도 재능을 드러내었다.

105) 소혜주후뢰(昭惠周后誄) : 이욱이 세상에 전하는 가장 긴 시편으로 1천여 자가 쓰였다. 이 글은 대주소혜주가 세상을 버린 뒤에 애도하기 위한 작품이다. 문장은 정감이 진지해서 감동을 시킨다. 소혜국(昭惠國)의 후비 주씨(周氏)로 아명이 아황(娥皇)이고 사도인 주종(周宗)의 딸이다. 경전과 역사에 능통하고 노래와 춤을 잘 추었고 특히 비파를 잘 탔다.

여 그것의 훼손되고 떨어진 부분을 산정(刪定)하였다.”라고 하였다. 대개 당나라 말엽에 처음에는 완전하지 못했다. 《촉도올(獨櫓杓)》¹⁰⁶⁾에 이르기를, “3월 상사일(上巳日)¹⁰⁷⁾에 왕연(王衍)이 이신정(怡神亭)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왕연이 스스로 박관을 잡고 <예상우의곡>, <후정화(後庭花)>, <사월인(思越人)>곡을 불렀다.”라고 하였는데, 결코 개원 시대의 전체 문장은 아닐 것이다.

《동미지(洞微志)》에 이르기를, “오대(五代) 시대에 제주(齊州)의 장구(章丘)와 북촌(北村)의 임육량(任六郎)이 도가 서적 읽기를 좋아하고 떡국을 좋아하여 천맥독(天麥毒)¹⁰⁸⁾에 걸렸고, 다른 곡을 많이 불렀다. 8월 보름날 밤에 사저에서 달을 기다리자 임육량은 박관을 잡고 한 곡을 떠들썩하게 불렀다. 어떤 물새와 들새 수 백 마리가 그 집에 모여서 귀 기울여 들었다.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지은 <예상우의곡>이다.’라고 하였다. 대중들이 어떻게 찾았는지 묻자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미 나쁜 병을 얻어 이 소리로 하여금 과연 전해지게 된 것인데 역시 믿을 수는 없다.

생각건대, 현종이 <과라문곡>을 <예상우의곡>으로 고치면서 황종상(黃鍾商)에 배속시켰고 ‘이따금 월조(越調)로 부르긴 한다.’라고 하니 바로 지금의 월조가 이것이다. 백거이의 <호양관야주예상(高陽觀夜奏霓裳)>시에

106) 촉도올(獨櫓杓) : 일명 《외사도옥(外史櫓杓)》로 송나라 장당영(張唐英)이 찬수하였다. 장당영은 자가 차공(次功), 호가 황송자(黃松子)로 촉주(蜀州 지금의 스촨성) 신진(新津)사람이다. 승상 장상영(張商英)의 형이다. 희녕(熙寧)연간에 전중시어사에 이르렀다. 이 책은 《전촉개국기(前蜀開國記)》과 《후촉실기(後蜀實記)》를 근본으로 하였다.

107) 상사일(上巳日) : 음력 3월 첫째 사일(巳日)을 말한다. 예부터 이날에는 수계(修禊: 상사일에 물가에서 지내는 제사)하는 풍속이 있었다. 《후한서(後漢書)》에 “3월 상사일에는 관민(官民)이 다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에 몸을 깨끗이 씻고 불상(不祥)을 불제(祓除)한다.”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 등 명사 42인이 상사일(上巳日)에 회계산(會稽山)의 난정에 모여서 귀신에게 빌어 재앙을 쫓는 계사(禊事)를 행한 난정기(蘭亭記)가 있다.

108) 천맥독(天麥毒) : 보리에 있는 독에 중독된 것이다. 보리로 만든 떡국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겼다.

이르길 “개원 시대에 남겨진 노래는 본디 처량한데, 하물며 추천조(秋天調)에 가까운 것이 상(商)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것이 황종상인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양수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는 <영부(瀛府)>와 <헌선음(獻仙音)> 두 곡이 있는데 이것은 남겨진 소리이다.”라고 하였다. <영부>는 황종궁(黃鍾宮)에 속하고, <헌선음>은 소식조(小石調)에 속하여 끝내 서로 상관이 없다. 구양수는 <예상우의곡>이 법곡이 되는 반면, <영부>와 <헌선음>은 법곡 중에서 남아진 소리이고 지금은 두 개의 궁조(宮調)가 합해져서 <예상우의>한 곡이 되어 남은 소리가 된지 알고 있지만 또한 설명이 너무 부실하다.

《몽계필담(夢溪筆談)》에서 말하기를 “부들 숲속의 소요루(逍遙樓) 문설주에 오르니, 당나라 사람의 가로 글씨(현판글씨)는 범어(梵語)와 비슷하니 <예상보(霓裳譜)>를 전하였는데, 글자의 뜻은 통하지 않아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연부(燕部)에 <헌선음>곡이 있으니 바로 남겨진 소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상우의곡>은 본래 도조(道調) 법곡이니 <헌선음>은 바로 소식조(小石調)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가우잡지(嘉祐雜志)》에 이르기를 “동주(同州)의 악공이 하중(河中)의 황번작(黃幡綽)의 <예상보>를 번안(翻案)하고, 균용(鈞容)의 악공 임수정(任守澄)이 그 말은 옳지 않고 별도로 법곡에 의지하여 만들었다. 교방(教坊)의 악공이 완화일(浣花日)¹⁰⁹⁾에 새로 보고서 그 뒷편에 “법곡이 비록 정교하더라도 <망영(望瀛)>보다 근사한 것은 없다.”라고 적었다. 내가 생각하건대, 《몽계필담》은 <헌선음>이 이것이 아니라 바로 도조의 법곡이 된다고 지목하였으니 환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직 《도리요결(理道要訣)》에만 실려있고, 당시 조지(朝旨)¹¹⁰⁾에 관계되

109) 완화일(浣花日) : 당(唐)나라 때 성도(成都)의 풍속에 매년 4월 19일마다 완화계(浣花溪) 가에서 연유(宴游)하면서 이 날을 완화일(浣花日)이라 일컬었다.

110) 조지(朝旨) : 임금의 명을 적어 내리는 문서. 일반적으로 정령(政令)을 조지에 반시(頒示)한다.

어서 속임수가 없다고 믿을 만 하다. 《가우잡지》에 ‘동주의 악공이 하중의 황변작의 〈예상부〉를 변안하였다’라고 하는데, 비록 어떠한 궁중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어떻게 소요루 문설주에 오른 가로 글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는가? 지금은 입수정의 악보와 함께 모두 전하지 않는다.

백거이의 〈화원미지예상부의곡가(和元微之霓裳羽衣曲歌)〉에 이르기를, “경쇠, 통소, 아쟁, 피리는 번갈아 연주하고, 치고 누르고 튕기고 부는 소리가 구불구불 이어진다.”라고 하였다. 주석에 이르기를 “무릇 법곡의 초기에 모든 악기가 정돈되지 않고 오직 쇠와 돌, 현악기, 대나무악기만 차례대로 소리를 냈으니 〈예상부의〉의 차례 역시 다시 이와 같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르기를, “산서(散序)¹¹¹ 여섯 악기로는 옷을 펼러이지 못하고, 양대(陽臺)¹¹²에 잠자던 구름은 게을러서 날아가지 않네. 차례에 맞게 손뼉 치며 처음으로 박자가 들어맞고, 가을 대나무 쪼개지고 봄날 얼음을 깨지는구나”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차례를 잃은 여섯 번이나 박자가 없기 때문에 춤추지 않고 차례에 맞자 비로소 박자가 있으니 또한 박자의 차례라고 이름 하였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복잡한 음과 급한 박자는 열두번 연주이고, 구슬을 튀기고 옥을 흔들어 어쩌나 쟁쟁하던가. 날던 난새는 춤을 다 추고서 날개를 거두려 하고, 울던 학은 곡이 끝나자 소리를 길게 늘어뜨리네.”라고 하였다. 주석에 이르기를, “《예상부의》곡을 열두번 연주하자 곡이 끝난다. 모든 곡이 끝나려는데, 모두 소리와 박자가 촉박한데, 〈예상부의〉의 끝부분에만 소리 한 부분을 길게 늘어뜨린다.”라

111) 산서(散序) : 수 양제(隋煬帝)가 변하(汴河)를 개통할 때 〈수조가두(水調歌頭)〉를 지었는데 당나라 사람들이 이를 부연하여 대곡(大曲)이 되었다고 한다. 산서, 중서(中序), 입곡(入破)의 세 부분이 있는데 〈수조가두〉는 중서의 제1장에 해당하여 두 곡조로 94자에서 97자로 이루어져 있다.

112) 양대(陽臺) : 초나라 회왕(懷王)이 고당(高唐)에 노닐다가 꿈속에 아름다운 여인과 운우(雲雨)의 정을 나누었다. 여인이 이별하며 말하기를 “첩은 무산(巫山)의 남쪽 고구의 꼭대기에 있는데,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아침저녁으로 양대 아래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무산을 바라보니, 과연 높은 봉우리에는 아침 햇살에 빛나는 아름다운 구름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文選 卷10 高唐賦序》

고 하였다.

《몽계필담》에서 이르길, “〈예상우의곡〉은 모두 12첩(疊)인데, 전반부 6첩은 박자가 없고, 제7첩부터는 그것을 첩편(疊遍)이라 부르는데 이로부터 비로소 박자가 있어서 춤을 춘다.”라고 하였다. 《몽계필담》은 심괄(沈适)¹¹³이 편찬한 것으로 심괄은 〈예상우의곡〉이 도조의 법곡이 된다고 지목하였으니 이러한 내용은 일찍이 옛 악보에 나온 적이 없다. 지금 말하는 ‘어찌 또한 백거이가 찾았겠는가.

세상에 반섭조(般涉調)인 〈불예상곡(拂霓裳曲)〉이 있는데, 때문에 석연년(石延年)¹¹⁴이 가져다 제작한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전하였는데 개원·천보 연간의 옛일을 서술했다. 석만경이 말하기를, “본래 이것은 달나라 궁궐에서 들었던 음악인데 인간 세상의 곡으로 번안하여 만들었다. 최근에 기수(夔卣) 증단백(曾端伯)¹¹⁵이 그 가사를 가감하여 파견부대 구호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개원·천보 연간에 남겨진 음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두 사람은 이 곡이 본디 황종상에 배속되고 〈불예상곡〉은 반섭조인 것을 몰랐을 것이다.

선화(宣和)¹¹⁶ 초기에 진주(普州) 수령인 산동(山東)사람 왕평(王平)이

113) 심괄(沈适) : 생졸년은 1031~1095이고, 송(宋)나라 항주(杭州) 사람으로 자는 존중(存中)이다. 신종(神宗) 희녕(熙寧) 연간에 왕안석(王安石)의 변법(變法)에 참여하였다. 박학하고 문장에 능하였으며, 천문(天文), 지리(地理), 화학(化學), 생물(生物), 율력(律曆), 음악(音樂), 의학(醫藥), 전제(典制) 등을 잘 알았다. 저서에 《몽계필담(夢溪筆談)》, 《소심양방(蘇沈良方)》, 《장흥집(長興集)》 등이 있다.

114) 석연년(石延年) : 송대의 시인으로 자는 만경(曼卿)이다. 그가 시로는 소순흠(蘇舜欽), 매요신(梅堯臣) 등과 명성을 나란히 하여 구양수로부터 많은 찬사를 입었고, 특히 술을 매우 즐기어 통음(痛飲)을 자주 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주선(酒仙)이라 칭하기도 하였다.《宋史 卷442 文苑列傳 石延年》《夢溪筆談 人事1》

115) 증단백(曾端伯) : 송나라 시인으로 열 가지 꽃을 ‘십우(十友)’라 하면서 이들의 품성에 대해, “다미(茶蘼)는 운우(韻友), 말리(茉莉)는 아우(雅友), 서향(瑞香)은 수우(殊友), 하화(荷花)는 정우(淨友), 암계(巖桂)는 선우(仙友), 해당은 명우(名友), 국화는 가우(佳友), 작약은 염우(豔友), 매화는 청우(淸友), 치자는 선우(禪友)”라고 각각 품평하였다.

문장과 학문이 화려하고 풍부하여 스스로 이척상(夷則商)인 〈예상우의보〉를 얻었고 진홍(陳鴻)과 백거이의 〈장한가전(長恨歌傳)〉¹¹⁷⁾과 아울러 백거이의 〈화원미지예상우의곡가(和元微之霓裳羽衣曲歌)〉를 취하고, 또 당나라 사람의 짧은 시와 긴 장구를 이것저것 취하고, 또한 현종황제와 양귀비의 고사를 언급하고 끝에 원진의 〈연창궁사(連昌宮詞)〉¹¹⁸⁾로 보충하여 엮어 곡을 완성하여 판각하여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 곡은 11단(段)이고 제4편에서 시작되어 제5편, 제6편, 정전(正巔)¹¹⁹⁾, 입파(入破), 허최곤(虛催袞), 실최곤(實催袞), 헐박(歇拍), 쇄곤(殺袞)의 음률과 박자는 백거이의 노래에 달린 주석과 크게 다르다. 그런즉 당나라 곡이 지금 세상에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 또한 한스럽다.

또 〈당사〉에 이르기를 “문객 가운데 악보와 그림으로 왕유(王維)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적어놓은 글이 없다. 왕유가 천천히 말하기를, ‘이 〈예상우의곡〉 제3첩은 가장 초기의 박자이다.’라고 하였다. 문객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악공이 이끌어 곡에 맞게 연주하니 그 체서야 믿었다.”라고 하니, 내가 그것을 비웃으며 〈예상우의〉곡의 제1첩에서 제6첩에 이르기까지 박자가 없는 것은 모두 차례가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음악가가 유행시킨 위대한 작품에 어떻게 박자가 있겠는가? 악보와 그림에 반드시

-
- 116) 선화(宣和) : 선화는 송 휘종(宋徽宗)의 연호로 1119~1125년까지를 말한다.
- 117) 장한가전(長恨歌傳) : 장한가는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장편 서사시이다. 당현종과 양귀비의 애정과 비극을 서술하였다. 시인은 역사적 인물과 전설을 인용하여 인생사를 창조하였고 예술적 형상으로 승화시킨 반면에 현실 생활의 진실을 재현하여 독자들을 감동시켰다. 장한가전은 당나라 진홍(陳鴻)의 작품으로 양귀비에 대한 당시의 풍문을 전하고 있다. 사람들이 “딸 낳았다 슬퍼 말고 득남했다 기뻐 말라.[生女勿悲酸 生男勿喜歡]”라고 하고 “그대 딸이 문미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니.[看女却爲門上楣]”라고 노래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白氏長慶集 卷12》
- 118) 연창궁사(連昌宮詞) : 당나라 원진(元稹)이 지은 것으로 여기서는 궁중의 악곡과 관련하여 인용한 고사로, 궁궐이 깊어서 새 악곡을 연주해도 궁궐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 119) 정전(正巔) : 송나라 대곡(大曲)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뒤에 나열된 것도 비슷하다.

무희를 만들었는데, <예상우의곡>의 산서 6첩은 박자가 없기 때문에 춤추지 않았다. 또 화공이 악기에 있어서 피리를 불거나 현을 튕겨도 단 한 글자만 그렸으니, 여러 곡 모두 이 한 글자만 있을 텐데 어찌 유독 <예상우의곡>만 없겠는가?

당나라 공위(孔緯)¹²⁰가 교방의 관원에 제수되어 배우¹²¹ 구리시(求利市)를 우대하였는데, 공위가 아전을 불러다 그 피리를 찾게 하고 그 구멍을 가리켜 묻기를 “<완계사(浣溪沙)>¹²²의 공룡자(孔籠子)는 누구인가?”라고 하자 여러 배우들이 파안대소하였다. 이것이 그림 위에다 곡명을 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참고문헌>

신현석, <王灼의 詞學論 考>, 《중국인문과학》 제15집, 1996.

이태형, <시대현실을 반영한 사론서 《碧鷄漫志》 初探>, 《中國語文論譯

120) 공위(孔緯) : 830~895, 자는 화문(化文)으로 곡부(曲阜) 사람이다. 공자의 제 40대손으로 당나라에서 희종(僖宗)과 소종(昭宗) 양대에 재상을 지냈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아우 공함(孔臧), 공훈(孔纘)이 모두 숙부에게 양육되었다. 선종(宣宗) 대종(大中) 13년(859)에 과거에 장원하여 비서성 교서랑에 제수되었다. 공함, 공훈 형제가 각각 장원을 차지하였다. 아들 공송필(孔崇弼) 역시 진사로 출신하였다.

121) 배우 : 원문 ‘우령(優伶)’은 특출한 재주를 지닌 배우를 가리킨다. 우(優)는 남자배우를 령(伶)은 여자 배우이기도 한다.

122) <완계사(浣溪紗)> : 완계사(浣溪沙)·완사계(浣紗溪)라고 하기도 한다. 소정화(小庭花)·완단사(玩丹砂)·원제견(怨啼鵑)·완사계(浣紗溪)·엄소제(掩蕭齋)·청화풍(淸和風)·환추풍(換追風)·최다의(最多宜)·감자완계사(減字浣溪沙)·양류맥(楊柳陌)·시향라(試香羅)·만원춘(滿院春)·광한지(廣寒枝)·경쌍춘(慶雙椿)·취중진(醉中眞)·취목서(醉木犀)·금전두(錦纏頭)·상국황(霜菊黃)·빈재주(頻載酒) 등 별칭이 많다. 당나라 때 교방(敎坊)의 가곡 이름인데, 후에는 이를 사용하여 사패(詞牌)를 지었다. 이별의 정한이나 서로의 소식이 궁금한 것 등을 노래한 것이 많다. 완계사의 결구(結句)는 정감이 언외(言外)에 풍겨 함축이 짙은 것을 중시한다.

叢刊》 제24집, 2009.1.

이태형, 〈王灼의 詩·詞·樂關係考察〉, 《국제지역학논총》, 2011.6.

徐信義 撰, 《碧鷄漫志校箋》, 國立臺灣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81.

王灼 撰, 《碧鷄漫志》, 北京, 中華書局, 1991.

岳珍 著, 《碧鷄漫志校正》, 成都, 巴蜀書社, 2000.

岳珍, 〈碧鷄漫志의 校改及其價値〉, 《天府新論》 第6期, 2001.

<Abstract>

《BiJiManZhi》 established a comparatively complete theoretics system concerning The origin and ontology of Ci poetry in view of philosophical cosmologist genesis and dualism. Wang Zhuo(王灼) put forward the following Ci Poetry of the Central Ideas. Wang Zhuo is literature, theorists during the southern song dynasty. He achieved some success In the fields.

His 《BiJiManZhi》is the highest achievement. That is the earliest extant a ci theory monographs. This monograph related to Music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i, the Ci origin, Ci criticism and so on. That is a high works of data value and academic value. This article uses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mathematical statistics, and logic analysis method. Study ci poetry criticism theory and analysis aesthetic standards. The first part with a longitudinal perspective Wang Zhuo for CI, CI origin theology and part of speech features are discussed. The social background and scale master piece of Ci that had mainly probed the sources and evolution of poetry, ci and the southern song dynasty, made the question of their clear to break through then stereotypes of ci the southern song dynasty to live up to Ci for Poetry and offered the

theoretical proofs for remaining the song like literary traits of ci.

Key Words : 왕작(WangZhuo), 남송(Southern Song Dynasty), 벽계만지
(《BiJiManZhi》), 사학비평(Criticism of Ci Literature),
사학유과(Schools of Ci Literature)